

##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,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

- KBS 「재난미디어센터」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방송 대응체계 점검
-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방송시설의 재난피해 예방활동 강조
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‘방통위’)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(월)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(사장 박민, 이하 ‘KBS’)의 「재난미디어센터」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.

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(제40조의2)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·물적·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, 장애인,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·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.

김홍일 위원장은 “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”면서, “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,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,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지상파방송정책과 재난방송관리팀	책임자	팀 장	이훈식 (02-2110-1442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우 (02-2110-1408)

